

# 완벽한 실무기본 담은 실용서

## ‘이코노미스트’ 포켓판 경영서

장익순  
출판기획자

우리나라 출판산업이 외형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출판산업의 내부 사정은 부실하고 전근대적이라고 전문가마다 지적하고 있다. 출판사의 영세성 문제, 서점 문제, 대여점 문제, 유통 문제, 전문인력 부족 문제, 출판내용의 부실 문제... 가격과 수익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들의 결과가 장기적인 출판계 불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영양실조에 걸린 출판물들

우리나라 출판물과 외국 출판물들을 두루 비교해 보면, 왜 우리 출판계가 이렇게 여전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왜 문제점 투성이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우리나라 출판물들은 편중되어 있다. 사람으로 치면 편식에 습관이 들어 병이 난 뚱뚱한 영양실조증 환자라 할 수 있겠다. 실조된 영양소는 바로 넉픽션 분야이며, 좁혀서 말하자면 실용서 분야이다. 넘치는 영양소는 기형적인 교육제도과 교육열이 빚어내는 교육 교재 분야와 어학 분야 그리고 문학분야이다.

하루에 30여종씩 신간을 쏟아낸다는 우리 출판계가 유독 넉픽션 분야에서 취약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넉픽션 출판물 시장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건전한 판단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에의 관심”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간명하다. ‘건설한 삶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부족’한 것이다. 병 나면 약국 가서 약사가 주는대로 먹으면 낫겠지 하는 우리네 방식처럼 말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자기 몸을 타인에게 ‘대충’ 방치해버리는 것이다. 약사들도 꼼꼼히 따져서 책임지고 조제해 주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병증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대충’ 약을 집어 준다. ‘국민보건의 상식’은 어디가고, 불건강한 이 관계는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간다. 항생제 남용으로 약발이 떨어지니 더 많은 더 강한 약이 필요하고, 세균은 더 강해져서 우리 몸은 정말 몸물 바를 모르게 되어간다. 정치쪽도 그다지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있

다. 경제가 그렇고, 사회 문화 분야도 그렇다.

### 불건정성이 만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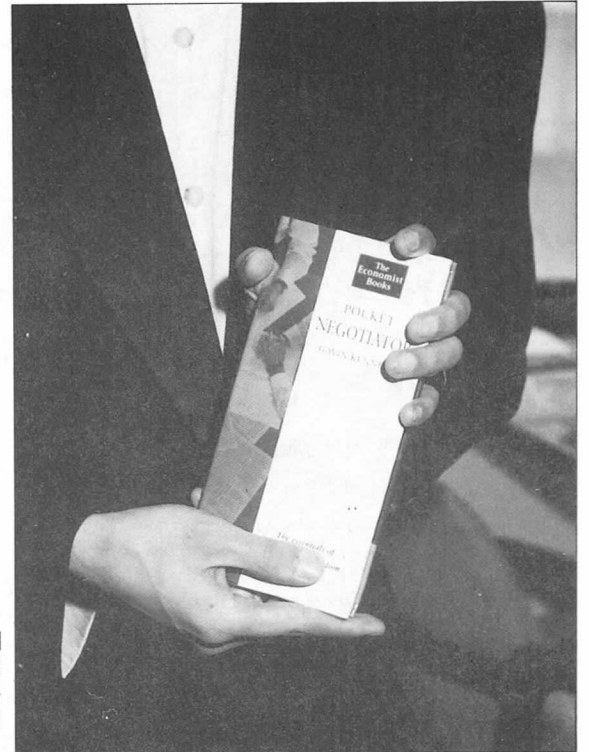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 대중을 위해 쉽고도 확실하게 쓴 실용서들이 다방면으로 출판되고 있고 많이 읽고 있다. 건강에 관련해서만도 약품에 대한 각종 기초상식과 자기 몸을 관리하고 진단하는 책들, 좋은 병원정보서, 세균 이야기, 비타민 및 건강식품류에 대한 평가서, 임신 출산 교재, 육아책, 성인 정신 건강책들이 나오고, 여가시간을 위한 각종 안내서 및 실용서가 나온다.

더욱이 부러운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꼭 그와 관련한 세밀한 추적과 신랄한 비판 및 대안을 담은 전문 서적이 나오고, 또 독자들도 많이 사 본다는 것이다. 저자들과 독자들과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중심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어떨까? 좋은 책을 내려는 출판사는 잘 안 팔릴까봐 지레 손을 놓고, 독자들은 사 볼 좋은 책이 없다고 지레 발길을 끊는다. ‘불건정성의 구조화’가 우리 사회에 만성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변장하는 것은 마취효과나 환각효과가 큰 분야들이다. 그럴 듯하게 채색하는 말잔치, 스포츠, 향락산업.

**건전한 사회구조는 출판과 독자의 보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도 이뤄진다.**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펴낸 6권짜리 경영실용서는 건전한 판단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의 관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손에 들고 다니며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담하게 꾸민 편형이 독특하다.



출판계에서 보자면 문학분야 출판의 과도함과 예로물의 범람이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다가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젖어 있는 게 현실이다. ‘편법이 통하는 사회’에서 ‘권력의 욕구’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고, 두터운 신뢰관계가 아닌 ‘돈’의 힘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다행히 몇년 전부터 실용분야에서 점점 좋은 책들이 선보이고 있다. 독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인이나 독자 모두가 문화가치를 만드는 주인공임을 자각한다면, 이 사회의 건설한 균형점을 만들어어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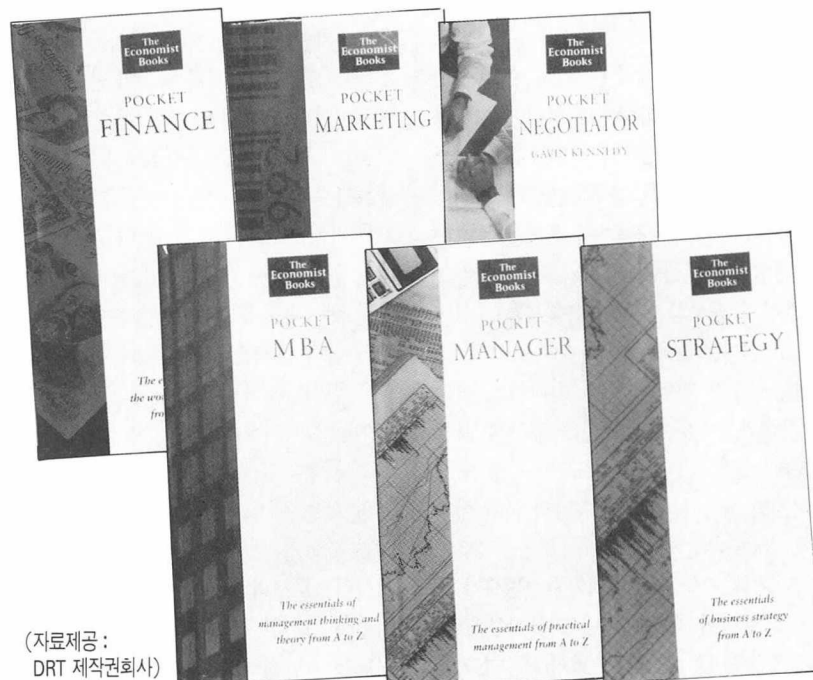
### 확실한 기초지식 보장

이번에 소개하는 기획물은 《THE ECONOMIST》가 펴낸 6권짜리 경영실용서이다. 아담한 포켓판형에, 경영의 기초지식을 여섯개 분야로 나누어 상세히 개관하고 있는 시리즈이다.

가로 9.6cm×세로 19.7cm.

경영자(MANAGER), 협상(NEGOTIATOR), 전략(STRATEGY), 마케팅(MARKETING), 재무(FINANCE) MBA 등 6분야.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앞의 약 30쪽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경영의 실제와 흐름을 개관한 에세이를 싣고 있고, 가운데 약 200쪽은 중요 용어를 백과사전식으로 배열하여 상세히 해설했다. 뒤의 10쪽쯤은 중요한 경영지표들과 주요 관련서적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따라서 이 책 한권은 한 분야에 관한 확실한 기초지식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섯권 모두를 곁에 두고 읽는다면 경영실무의 기본 지형도는 숙지하게 되는 셈이다. ❖



(자료제공: DRT 제작권회사)